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0일 화요일 음 11월 27일 (4물)

한라칼럼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6℃, 낮 최고기온은 11~13℃로 예상된다.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Humidity (습도). Rows show humidity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and Temperature (기온). Rows show sunrise/sunset times and temperatures for morning and evening.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높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Forecast (예보). Rows show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미세먼지 (PM10)

Table with 4 columns: Level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Table with 4 columns: Level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상어 개체 수 감소, 스피이버그 “후회해”

공격성 과장 남획 이어져

할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피이버그 감독이 자신의 영화 ‘쥬스’ (Jaws)의 흥행이 상어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영화 ‘쥬스’ 감독 스티븐 스피이버그. 연합뉴스

스피이버그 감독은 18일 (현지시간) 영국 BBC 라디오4 ‘데저트 아일랜드 디스크스’에서 그의 영화로 인해 일어난 상어 개체 수 감소와 관련해 “진심으로 오늘날까지도 후회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어 연구를 위한 플로리다 프로그램 (FPSR)에 따르면 ‘쥬스’ 개봉 이후 수년간 북미 동해안 상어 개체 수는 50% 급감했다.

1975년 개봉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 ‘쥬스’는 미국 한 해 안가 마을이 상어의 습격을 받아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렸다.

스피이버그 감독은 이날 상어들로 둘러싸인 무인도에 갇힌다면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그게 내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운을 뗐다.

‘쥬스’는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영화사에 족적을 남겼지만 사람을 상대로 한 상어의 공격성이 과장된 탓에 경쟁적인 상어 남획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면서 “상어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운 게 아니라 상어들이 1975년 이후 일어난 광풍 때문에 내게 화나 있을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축구 전쟁



조상운 선임기자

29일간의 ‘지구촌 축구 전쟁’이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달 2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대한민국도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다시 못 볼 명승부를 실시간으로 즐겼다. 역대급 승부 끝에 ‘음-메대전’은 둘 다 승리한 끝에 결국 지상최대의 축구쇼로 결판났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적당한 이번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꺾으며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는 대기변을 일으켰다. 전차군단 독일은 2회 연속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패해 16강전 진출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이번 월드컵 대부분의 경기를 다음 날 하이лай트로 시청했다. 결승전에는 시간을 투자했다. 두 번

치도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 위기를 전파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파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건 당연지사.

국가적인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제주 지방정부 등 지역 내에서의 대응 노력은 어떠한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대증요법을 치료에 나선다. 고열, 두통, 몸살 등 증상에 맞는 약 처방으로 한다. 그런데 제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증요법에 그친다는 것이다.

어느덧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을 채우고 있다. 제주지역사회는 코로나19에 편승해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민선 8기를 출범시킨 도정은 과거와 달라진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사실훈이다. 과거를 답습하면서 나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축구전쟁’은 4년 후에 재개되고 개전과 종전을 거듭한다. 지역사회 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백신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독약’이 될 수 있다.

열린마당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피할 수 있다



김동권 제주대학교 학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다. 본격적인 동장군이 찾아오면서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얼어 발생하는 결빙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계절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겨울철이 가장 적었다. 하지만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치사율의 경우 겨울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그동안 식품 등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 섭취 기한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많은 식품들이 폐기되는 상황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명확한 섭취 가능기한을 제공해 음식 섭취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을 줄여 10년간 소비자는 7조 3000억원, 산업체는 2200억원의 경

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그만큼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다만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의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업체는 계도 기간에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안에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재를 소비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두 종류의 표시제품이 있더라도 혼란해하지 마시고 제품을 구매 후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식품을 소비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하면 안 된다.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Citrus seedlings) with contact info: 010.7204.1286

Advertisement for '감귤 포트묘목 분양' (Citrus pot seedling distribution) with contact info: 010-4450-4316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분양'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with list of varieties and contact info: 010-3694-5423

Advertisement for '감귤 신묘목 분양' (Citrus new seedling distribution) with list of varieties and contact info: 010-2691-1883